



2021년 글로벌 손해보험시장 전망

이아름 연구원

요약

2021년 글로벌 손해보험시장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입보험료가 증가됨에 따라 2020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. 2020년 손해보험상품 중 자동차배상책임보험상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상품의 수입보험료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. 2021년 글로벌 손해보험산업은 팬데믹 관련 상품개발 증가, 하이브리드 채널 활성화, 언더라이팅 역량 증가, 비대면 청구방법 및 청구사기 감지 역량 확대 등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며, 팬데믹 관련 다양한 분야의 규제변화도 예상됨

- 2021년 글로벌 손해보험시장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입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¹⁾
 -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19 및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해 많은 글로벌 손해보험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, 2020년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0.0%일 것으로 예상됨
 - 2020년 선진국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-1.0%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, 신흥국의 경우 3.0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
 - 반면, 2021년 손해보험회사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신흥국의 경우 7%를 기록하고, 선진국은 3.0%를 기록하며 전체적으로 3.0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

〈표 1〉 글로벌 손해보험시장 수입보험료 증가율

(단위: %)

시장	2009~2018 ¹⁾	2019	2020E	2021F
선진국	2.6	2.7	-1.0	3.0
신흥국	7.7	7.7	3.0	7.0
세계	3.2	3.5	0.0	3.0

주: 1) 연평균 증가율

자료: Swiss Re(2020), "World Insurance: riding out the 2020 pandemic storm", Sigma, No. 4/2020

- 2020년 손해보험상품 중 자동차배상책임보험상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상품의 수입보험료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²⁾

1) Deloitte(2020. 12. 3), "2021 Insurance outlook"

-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경우,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입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, 개인운전자 감소와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환급 및 할인 프로그램 실시³⁾로 2020년 9개월 동안 수입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2.5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 -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,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휴업 및 영업단축 명령에 따른 임금삭감으로 2020년 9개월 동안 수입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13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 -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단체 상해·건강보험의 경우, 기업의 휴업 및 폐업, 대형 이벤트 취소 등으로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18% 감소함
 - 산업재해보상보험 수입보험료는 2022년 4/4분기에 도달해서야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, 특히 소기업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, 소매업자, 레스토랑, 개인 서비스업자들의 휴업 및 폐업에 따라 회복이 더욱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2021년 글로벌 손해보험산업은 팬데믹 관련 상품개발 증가, 하이브리드 채널 활성화, 언더라이팅 역량 증가, 비대면 청구방법 및 청구사기 감지 역량 확대 등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며, 팬데믹 관련 다양한 분야의 규제변화도 예상됨
- 2021년에는 팬데믹 관련 신규 상품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, 비대면을 위한 온라인 채널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 설계사판매채널도 유지되는 등 하이브리드형 채널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
 - 팬데믹 관련 신규 보험상품은 향후 발생 가능한 또 다른 바이러스도 보장할 수도 있으며, 팬데믹으로 인한 운전 빈도 및 근무 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회사가 개인별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
 - 자동화, 인공지능 및 첨단 예측모델 활용으로 언더라이팅 역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, 신기술 활용으로 비대면 청구방법 및 청구 진행 중 사기를 감지할 수 있는 역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
 - 또한, 코로나19로 인한 손해보상과 비대면 판매 및 청구에 대한 보험시장 행위 관련 규제, 기업 휴지, 산업재해보상, 코로나19 및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증가에 따른 지급여력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규제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한편, 국내 손해보험시장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 관련 보험상품 수요, 비대면 모집 및 청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, 향후 국내 보험회사들은 이에 대응한 상품개발과 판매채널 다양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
- 국내 보험회사들은 소비자 니즈에 따라 맞춤형 팬데믹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, 전염병 확산 시에도 소비자 보호 및 위험보장을 위해 원활한 보험영업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비대면 모집 및 청구를 위한 기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

2) AM Best(2020. 12. 16), "Catastrophes and 코로나19 Changing Business Trends for P/C Insurers"

3) 주행거리 연동형 자동차보험상품을 가입할 경우,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환급이나 할인이 제공됨